

#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콘텐츠 메카' 꿈꾼다



VR·AR에서 드론까지 미래산업의 산실  
2018년 설립 콘텐츠코리아랩 창작 지원  
관광+ICT 융합, 전남 콘텐츠 생태계 구축  
지역의 ICT·SW 산업 발전 견인  
전남 '블루투어' 섬·바다 새 성장동력으로



'소쇄원'의 4계 풍광과 성리학자 김인후 선생의 한시 '소쇄원48영'을 시청각적으로 재현한 대형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전시회의 모습.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008년 8월 문을 열어 올해로 개원 13년째를 맞았다. 자연, 문화, 역사, 인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전남도가 진흥원을 출범시키면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나 다른 사업과 본격적인 융·복합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가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진흥원은 파생 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지원,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나누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등 전남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에 거점을 두고,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 전남의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상력을 현실로 열린콘텐츠 제작 공간 '전남콘텐츠코리아랩'=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 화면도 첫 시작은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지역의 독특한 스토리와 아이디어로 대중을 사로잡는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진흥원의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라는 모토로 지역 기반 콘텐츠 창작자 육성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순천 아랫장에 위치한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지난 2018년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들어선 창작자 육성 및 지원공간이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창작활동과 모임을 지원하는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실, 세미나실로 구성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지난 2019년 캐릭터, 영상 콘텐츠, 시제품 제작 전문교육을 통해 260명의 창작자를 배출했으며, 추가 지원을 통해 시제품 40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특히 '전라남도 1인 크리에이터 대회'는 지역 내 영상 크리에이터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전남을 알리고 지역 문화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웹툰작가아카데미, 1인크리에이터 스킬업 과정 등 지역 강점분야 창작자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순천글로벌웹툰센터 등 만화분야에 특화된 순천의 특성을 살려 지역 내 웹툰작가 지망생을 발굴하고 웹툰의 플랫폼 연재까지 원스톱 지원 중이다. 또 스토리 아카데미, 관광 크리에이터 양성과정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된 특화과정을 통해 지역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광+ICT 융합, 전남 콘텐츠 생태계 구축=4차 산

업 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게임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육성과 함께 전남 특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며 지역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전남VRAR제작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콘텐츠 기업 입주공간을 지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폴투윈코리아(주) 등 19개 전문기업을 전남으로 유치해 3년 연속 전남도 투자유치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전남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 풍부한 문화원천소스, 콘텐츠 기술을 융합해 지역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도 용장성 홍보관, 신안 조희룡 미술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함평엑스포공원에 체험형 전시공간을 구축하고, 완도 해변공원과 보성 붓재와 연계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실외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ICT 융합을 통한 지역산업의 재도약 지원=지역의 영세한 ICT 및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부터 SW 융합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의 ICT·SW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

미래채용사업, 산업용 드론 기반구축 및 실증사업 등을 운영하며 SW에 대한 지역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역 SW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가거도를 포함한 도서벽지, 읍·면 등 정보소의 지역 초중등학생 474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W 교육'을 운영하며 양질의 SW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올해는 신규로 시작하는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과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ICT/SW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남 '섬'과 '바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민선 7기 전남의 새천년 비전인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가운데 하나인 '블루 투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신설된 전라남도관광진흥단이 전남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섬을 주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국가 섬·바다정원 인프라 및 관광 콘텐츠 구축, ICT기반 융합형 관광 편의·안전 서비스, 섬 홍보·마케팅 및 6차산업 고도화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섬이 보유한 우수한 생태·자연에 접한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형 콘텐츠 아일랜드를 조성함으로써 전남지역만의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이 개최한 '2020 BICOF 연계 네트워킹'에 참가한 웹툰 작가와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서로 어울려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경영-콘텐츠 접목 최고 정보문화기관 만들것”

### 이준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준근(62)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콘텐츠 분야에서 전배가 깊은 전문가다. 경영학박사를 취득한 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융합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 선임됐다. 경영과 콘텐츠를 접목시켜 진흥원을 최고의 정보문화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다음은 일문일답.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한다면.

▲진흥원은 'ICT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창조 산업 리더'라는 비전을 가지고 민선7기 전남도의 시책과 연계해 ▲ICT 및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IT/SW 활용 미래전략 산업육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3개 중점 분야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향후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관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조직원이 함께 노력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년간 분야별 총 8개 신규사업 51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며, 활력있는 전남을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죠. 이들 공모사업은 전남지역 전통 주력산업을 뒷받침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냈다.

▲진흥원은 전라남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및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와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통해 111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콘텐츠산업 청년인재 양성 리소어링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 중 70여 명의 인원이 수도권 등지에서 지역으로 유입되기도 했어요. 콘텐츠 불모지인 전남의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 수도 약 25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실전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3년 간 452명의 신규 채용을 일궈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정보문화 산업 관련 지역인재의 로컬 라이제이션(Localization)을 이끌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출산 및 인구증대 등의 거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ICT와 콘텐츠분야 일자리산업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앞으로 진흥원은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을 키우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관', 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융·복합 정보통신산업 중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자세로 소통하고 다가가 세계를 무대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남의 미래 100년을 위해 지역의 미래까지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등 양질의 1117개 일자리 창출 새로운 뉴노멀 발굴·제시 1시군 1특화 콘텐츠 중심 'ICT-관광 융복합 벨트' 추진

-진흥원 향후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진흥원은 지난 10년동안 지역 콘텐츠·ICT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20년은 미래 1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산업적 여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새롭게 등장할 뉴노멀(New Normal)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흥원의 새로운 목표이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대규모 관광인프라나 집적 시설이 부족한 전남에 주어질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전남의 성장동력화 하는 것이 바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22개 시·군이 보유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1시·군 1특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체 기획된 'ICT-관광 융복합 콘텐츠벨트 조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앞으로 진흥원은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을 키우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관', 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융·복합 정보통신산업 중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자세로 소통하고 다가가 세계를 무대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남의 미래 100년을 위해 지역의 미래까지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산 행사대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